

## 『남녀연합토론집- 부(附) 여사 강연』과 김일엽의 여성론

이상경

1921년 8월 광문사에서 발행한 『남녀연합토론집』에 실려 있는 토론 중 신여자사에서 주최했던 「생활을 향상함에는 금전이나? 지식이나?」라는 주제의 토론과 부록으로 실려 있는 일엽 김원주의 글 한 편을 소개한다.

『남녀연합토론집』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삼일운동 이후 경향 각지에서 청년 남녀들이 사회의 제 문제를 두고 활발하게 벌인 토론회에서 오고 간 연설들을 요약 정리하고 부록으로 당시 신여성들의 강연 내용을 정리하여 붙인 책이다. 편집자는 현병주(玄丙周)로서 1919년 말 '평양구락부에서 개최한 남녀토론' 관련 기사가 신문에 실린 것을 읽고 '감흥된 바'가 있어 이러한 토론집을 기획하였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토론회는 대부분 1920년에 서울의 중앙청년회관에서 열렸고 토론회의 주최자는 유년주일학교, 엽윗 청년회 등 청년 단체들이었다.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 청년 지식계의 풍경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회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당시 청년 남녀들의 지적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 인생의 최대 욕망은 쾌락이냐? 사업이냐?
- 인류의 역사는 인위이냐? 순환이냐?
- 현금 조선 가정 유지의 요소는 질서이냐? 애(愛)이냐?
- 현금의 요구하는 바가 물질이냐? 정신이냐?
- 사업을 성취함에는 용기이냐? 지혜이냐?
- 인류 향상에는 종교이냐? 과학이냐?
- 생활을 향상함에는 금전이냐? 지식이냐?
- 생활 향상에는 지식이 승어금전(勝於金錢)
- 사업 성공에는 재(才)? 근(勤)?

토론회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양편을 미리 정해서 주장을 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찬성과 반대 각각에는 대개 남녀가 섞여 있지만 남성들만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 토론 중에서 여기 소개하는 것은 김일엽이 주재하던 신여자사(新女子社)가 「생활을 향상함에는 금전이냐? 지식이냐?」라는 주제를 걸고 1920년 9월 22일 오후 8시 중앙청년회관에서 개최한 남녀연합토론회이다. 이 책에 실린 여러 토론회 중 남녀가 편을 나누어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한 경우는 이 신여자사가 주최한 토론회가 유일한 것이다.

나혜석이 사회를 본 이 토론회에서 남자 연사(이재갑, 김성룡, 도진호)는 모두 금전 즉 경제가 우선임을 주장하고 여자 연사(김원주, 전유덕, 김활란)는 모두 거기에 반대해서 지식 즉 교육이 우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가령 전유덕은 “여러분이 전차로 오신 것이 금전으로 인하여 오신 것이오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가의 발명으로 인하여 전차가 통행하는 때문이 올시다.”라고 하고 도진호는 “입장하신 이가 지식을 구하러 온 것이지만은 입참(入參)치 못하신 이는 금전이 없어 못 들어오신 것이 아니오니까. 고 학생들이 지식을 향상하려 하나 여력이 없어서 신문 분전(分傳)을 하는 것이 하고(何故)오니까? 이것도 금전의 관계올시다.”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남자 연사들은 돈이 있어야 배울 수도 있다는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고 여

자 연사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의 의지에 더 비중을 두는 이런 경향은 사회 구조의 모순에 눈뜨고 사회주의 사상이 세를 얻어 가기 시작한 1920년대 지식인 사회에서 남성계와는 달리 여성계에는 아직 사회주의 계열의 생각이 들어오기 전의 풍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밖에는 남녀가 편을 갈라서 찬성이나 반대를 주장한 토론회는 없는데 이런 글모음집에 ‘남녀연합토론회’ 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아무래도 여성들의 글이 실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독자들에게 좀더 호소력을 가지려고 하는 편집자의 상업적 고려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 토론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탓인지 부록으로 여성들의 글을 모은 ‘여사 강연(女史 講演)’ 을 싣고 있다. 실린 글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다.

아(我) 청년 남녀의 중부(重負)는 무엇?	김자숙(金姿淑)
우리의 집	박정화(朴禎華)
여자 교육과 사회 관계	김원주(金元周)
같이 삼시다	방성옥(方成玉)
여자 교육의 필요	전유덕(田有德)
현대의 청년	이현중(李賢鍾)
청년의 이상	이숙정(李淑貞)
우리 학생계의 애정과 표준	방성옥(方成玉)
세계 사조와 조선 여자	김원주(金元周)

강연의 연사로 나선 여성들 중 김원주와 전유덕 외의 이름은 상당히 낯설다. 그러나 이런 토론회와 강연에 참가했던 여성들의 이름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여성들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공중 앞에 나서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던 풍경을 그려볼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김원주의 「세계 사조와 조선 여자」는 일엽이 당시 서구 여성 운동의 역사를 공부했고 당시 중국, 일본의 여성계와 여성운동의 사

정을 두루 알고 있었으며 조선적 현실은 그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다. 1920년 『신여자』를 주재 하던 당시의 김원주의 안목과 여성계의 지식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여러 여성문학 연구자의 일독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내 주신 소명출판 박성모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여러 여성문학 연구자의 편의를 위하여 김원주의 글은 원문을 원칙으로 삼되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오늘날의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고 적절하게 문단도 나누었다. 그리고 외국어는 서백리아 시베리아, 나마 로마, 짠 짝구 루쏘 장 자크 루소, 오린독트퀸치 올림프 드 구즈, 로사라곤부 로스라공브로 바꾸었다.

■ 필자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男女社會討論集

六〇  
있지 않은지 案敎할것은未開 創造時代의人이 價物을 用이 오至今이 文明 時代의人은 價物치 아니합니다

生活을 向上 爲는 金錢의 知識?

一九二四年九月二十四日 下午八時 中央警察署 警察內에서 男女社會討論會 羅蕙鄒女士 主講

司會 羅蕙鄒女士

可便

李蕙甲 金成 羅蕙鄒

否便

金成 羅蕙鄒

「可」李蕙甲은 이 르되「原始時代에 吾人 生活은 物々 相換을 用이 布帛이 有하고 穀粟이 無當時는 布帛으로 穀粟을 交換하고 穀粟이 有하고 布帛이 無當時는 穀粟으로 布帛을 交換을 用입니다...」그리는 것이 生活이漸々 向上 進步된을 따라 至今은 交易上 貨幣를 中心으로 하는 吾人의 生活이 安否 否에 到했습니다...」그러서 至今은 生活上 何의 金錢이 없으면 完全은 生活을 行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此 世界에 吾人이 可便을 하는 大端이나 宜斷이 아니라 經濟을 시다 보시오! 支那人이나 猶太人의 經濟上 勢力이 얼마이나 偉大할 것인가 그人民의 地位는 비유 他種族에 不及하나 至於 商權으로서는 全世界를 征服하거나 그 例를 學은 前年 前에 浦羅斯德에서 支那商人이 銀行預金을 回收할인 露國貨物가 枯渴의 境에 到합니다 猶太人의 金錢勢力은 世界經濟의 大勢力 左右하는 露人民의 權利는 次와 次 墮落의 境에 到스나 그 經濟的 實力으로 因하여 全 派는 富을 지안코 今日까지 完全은 新 生活을 行합니다...」現代列強으로 相稱하는 英米獨法이다...」經濟的 基礎가 堅固한 原因이 是이다

한양學者들이 研究當時에 金錢이 何의 功을 爲이던 부인할 수 없고 生活을 行할 能기가 否 至今 朝鮮에 도 大學校 一處가 有는 것이 金錢의 關係가 大 變了 日本

生活을 向上 爲는 金錢의 知識

男女聯合討論集

六二

은 二百萬人에對하여 大學校 一處或이有하지 則 歸은 二千萬人에對하여 一  
個의 大學校도 有는 것이 難사 歸이오 尼가 教授者가 無을 것 도 아니 을사 다  
만 金錢이 업습나다

朝鮮人도 高層에 居處하고 珍味도 飲食을 하고 布衣 褻冠자 有면 然다시  
金錢이 잇사아 될 것이 을사 다... 한 때 吾人의 向上처 爲을 것이 金錢이 無을  
原因이 아니 오 尼가

그 리분은 經濟를 破忽히 받기 爲을 惡切이 하 랍니다 然 往은 經濟를 破忽히 하  
잇습나다 宋尤 濤의 江景이 居處 跡에 據商에 據 價를 무 價 되니 傍人들이 非  
難사 以 學者로 物價를 알 나 然다 亦 賦 築을 으로 價値으로 移을 습나 然다 當  
時다... 然리분은 그리 苦 難을 破權을 고 누구 는 力 勤主 義를 實行하여  
手足이 胼胝하고 田土에 汗滴하고 亦 勤하여 金錢이 貯蓄되어 生活이 向上될  
줄아시오... 時間이 短促하여 下 墮습나다 然리분은 本人의 力量을 確信

하고 次에 登壇하는 否便의 言論으로 因하여 忽然히 變動하여 歸을 잇습나다  
... 否便의 論者는 우리 男子와 又 其 動作이 活潑치 못하고 다 單 理々호 當 辭  
로써 以 보시오... 歸에 不 適을 더 尼가 今 固 討論에 勝利는 우리 男子 便으로  
歸을 當 權을 得는 事을 사 得

一節 金元周는 이르되 吾人은 以 歸非로 可 便 漢士와 又 其 當 辭에 是 能 不  
高나 다 然는 우리는 正當호 事實을 說明할 辨이 尼가 事實이 正當호 亦에 何  
必이 然호 當 辭을 用히 其 辨을 從 費을 리오! 本題下에 歸來의 然리분은 必 覺  
知識이 金錢로 當 離等히 以 當 辨을 用고 자 然사 리다 然는 本人은 知 錢平 金錢  
의 價値을 比較하여 그 輕重을 辨을 當 습나 다 吾人이 單 知 識이 然호 然 機 關  
입는 事의 又 羽 翼을 爲 賴와 又 습나 다... 古 聖이 單 知 識을 求치  
안고 飽 食 燈 衣로 遊居하는 者는 禽 獸와 又 다 有 습나 다... 然 則 至 今에  
金錢生活이 重습나 다 然는 無 知 覺을 單이 을사 다 吾人의 生活에 金錢이  
生 活을 向上 式에 爲 金錢의 知 識

六三

男女社會對論

六四  
必要지 아니던 것이 아니라의 生活向上은 그는 반드시 知識이라야 된다  
向上의 動機는 다 知識中으로 從來한다 그 知識의 機能은 金錢도  
답답 아니나 重寶는 다……

知識이 生活後에야 金錢이 有한다나 金錢은 다만 衣食住를 經營함에 不  
過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現今은 原始時代 野蠻生活을 離時가 아니므로 智가 進  
步되어 行星을 發見하고 月球을 通行할 리는 此時代에야도 金錢의  
生活이 知識의 生活보 向上의 價다 할 수 있습니 다…… 吾人은 理想的의 生  
活을 要求한다나 理想的 生活은 吾人의 自體車馬車를 使用하는 것이 오  
닛가? 아니 아니라 理想的 生活은 向上의 野蠻이고 野蠻은 金錢의 生活  
을 離脫하지 金錢의 聲音을 들리 마라야 한다…… 「中庸」…… 吾人의 智  
識은 吾人의 同故오닛가 다만 그 常性無厭은 惡行이 發生됨은 金錢生活의 數  
據가 되어 온다

吾人의 生活은 知識이 無하면 苟은 비와 又의 完全을 不得한다 그렇  
게 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울고 울고 또 울고 나야야 초로 善生活을 잊습니  
다…… 그런데 吾人社會의 現狀을 觀察한 吾人은 守舊廣의 精神을 究  
치 못하고 青年은 더 우고 高等教授 卒業後에 判任官一職이면 滿足은 勿  
으로 보이며 又의 墮落의 戒습니 다

今日吾人의 渴求는 知識이니 知識이란 것은 個人의 生命뿐 아니라  
家庭의 生命이며 社會의 生命이며 國家의 生命이 온다 其次로 金錢은 要求  
할 것이 아니라 知識이 同化된 後라야 可利 善生活을 잊습니 다

「可」金成能은 이르되「今世 百便辯論을 聽함이 우리 可便에 先進士는  
獨善則 공에 刀을 用함은 사다 今日 附隨은 勿論 可便이 聽利를 得함이  
이 빛가 吾人은 實을 忘 못하겠습니 다

上古에는 金錢이 無함으로 吾人의 得息이 極히 不便利하다니 知識이 漸々  
在 吾人의 生活에 金錢의 知識  
六五





那樣인것은것이金錢의關係라 한나知識이인는緣故를시나頑固의思想이又  
 且新知識이不足하여相當은知識인는極가 없는지點이을시나吾人의生活  
 도金錢보단知識을은저求할것이니金錢에만努力을할고知識에나努力을  
 是것이可當오이다

今夕에여러분이電車도오신것이金錢으로困乏아오신것이오닛가? 그  
 件것이 아니라知識家の體剛으로困乏아電車が通行하는때를이을시나:  
 吾人의要求는人道正義도亦是知識에서求할것이을시나

「可、那鐵鎚는이르되吾人의生活向上에故은金錢이라故은知識이라  
 是는것에對한本人은그兩者의輕重을地平線으로比較하려함나다果然  
 今夕에入場을申이가知識을求하려오닛가? 저마는人學처우申이는金錢  
 이업서求할어은것이아니오닛가故은말하기는電車이나電燈이知識中에  
 서出出을한다나其實은金錢이을시나... 吾學生들이知識을向上하려

한나餘力이업서나新聞分傳을하는것이何故오닛가이것은金錢의關係를  
 시나勞動者가이러한會場에參列하는時間이은는것은金錢이업서求을나  
 다그런즉知識과金錢을比較하면金錢의力이여黨을나타吾人이性惡으로  
 는柏林大學이라도設立할수안되지는知當처우申은것은金錢의實力이업는  
 緣故를시나여러분은空想을가지고말고은저實現에努力을시나오務論하고  
 經濟上基礎가確實하여萬事가成功할것이을시나그런즉吾人社會實完  
 全하라는것은及도은저經濟上實力을의의야필當모더러분은覺悟하시오

「當、金活圖은이르되여러분은及도오섯을넋가엿지아故은오섯을넋가  
 明白을求하려오섯을넋가入場二十餘을자당할리오섯을넋가? 오섯을넋가  
 다! 知識을求하려오섯을넋가아니오닛가

아사可便演士가말하기를原始時代生活은物々交換을하기역은제生活  
 이不能利을았다나그時代に不能利은生活은知識이不足한點이아니

吾人生活向上에對한金鎚

男女聯合會 論議

上

오늘날 今日吾人의金錢生活는 甚도知識의發達됨으로便利及生活의  
는것이올시다

또한남기를猶大人의支那人의經濟가있디말다하니 그金錢貯蓄하는것  
吾人은無上程度의生活로欲張할닛가?

中 辭

또金錢이업서大學校를設치못할타니吾人도일부主權國主義를觀  
望하고理想의生活로向上을望스런柏林大學을가자아니하더도京城內  
에柏林大學은恐らく多數의建設의必要가있을시다

또勞動者도말할타리도經濟上可植を狀態도있는것은그財庫의關係  
인가知識의關係인가……을나그레요! 무성할아야財源을얻지코

또電車電燈의金錢에서由出來었다하니當初에知識家의發見이업스면  
있지부에의것을얻기가……中 辭

今日歐洲戰爭이依是의情도金錢의力으로成함이오날가이世界를과이  
씨의手中에나치아니할것도다! 知識의研究力으로成함이올시다

우리朝鮮民族도何處를가든지高等科進을받으리金錢만가지면정말  
알닛가? 知識이업서면정제의交際를할수가있나요

또勞働者들의時間이업는것도왜그렇닛가學問이업고知識이업서그  
의호오이다……그런데이노士는거지일하듯金錢이擲擯하고있나그  
런말이어되잇지요……

말이黃金時代가다시오면이것은生活의向上이다아니라向下을지다吾人  
은完全을知識을가지자아經濟上問題도自然히解決될것이올시다

生活向上에 知識이 勝於 金錢

(著述)

八月二十一日 午 時 同文堂公立普通學校에서 大學生演說會第一回討論會

可便(金) 否便(朴) 武 彬

續論(一) 中 辭 武 彬

生活向上에 知識이 勝於 金錢

七一